

5·6 2025
vol.387
www.koreacpa.org

자연과농업 Nature&Farming



기획특집

궁금한 이야기 why
농약 제조기업 제품 개발·마케팅 키맨에게 듣는
2025 농약시장 마케팅 키워드

현장취재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가다
인터뷰 - 윤은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습기로운 농사생활

토마토의 주요 병해 및 방제요령



한국작물보호협회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Nature&Farming 자연과농업

CONTENTS vol.387_2025.5·6



스페셜 & 피플

- 04 기획특집 [궁금한 이야기 Why]
농약 제조기업 제품 개발·마케팅 키맨에게 듣는
2025 농약시장 마케팅 키워드
- 12 현장취재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식탁 수비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가다
인터뷰-윤은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 20 슬기로운 농사생활
토마토의 주요 병해 및 방제요령
한유경 연구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뉴스 & 브리핑

- 33 농약 안전사용 캠페인 ⑧
- 34 우수 추천제품
- 38 경북지역 산불피해 농가돕기 '온정의 손길'
- 40 회원사 소식

기술 & 정보

- 44 민원현장
③-1 양상추에 농약과 영양제 혼용·살포에 의한 이상 증상
③-2 벼 제초제 비산에 따른 논콩 생육 이상 증상
이인용 기술위원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48 독성이야기 ⑨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와 보호장비의 중요성
양시영 연구사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
- 52 영농정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 55 2025 작물보호제지침서 발간 안내
- 56 문화마당
① 가정의 달, 트렌드 리포트
② 대기 건조하고 일교차 큰 5~6월
제철음식으로 건강 살리기
- 64 독자 참여마당
사진 속 틀린 곳 찾기 / 낱말퀴즈

제46권 3호 통권 387호 (비매품)
등록번호 라-00080 / ISSN 2287-9374

등록일자 1980.2.27 발행일 2025.5.29 발행인 엄병진 편집인 조성필 인쇄처 정우피앤피
발행처 한국작물보호협회 (06741)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대양빌딩) 5층 TEL : 3474-1590~4 FAX : 3472-4134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농약 제조기업 제품 개발·마케팅
키맨(Key man)에게 듣는

궁금한
이야기
Why

2025 농약시장 마케팅 키워드

저항성 관리

노동력 절감 기술

지속가능성

환경안전성

정밀 솔루션

기후변화

생력형 제형 개발

융복합 서비스

기후위기의 시대 도래, 디지털 융복합 기반의 4차산업 혁명 가속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전 세계적 변화의 바람이 농업계에도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농약 제조기업들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인 농업인과 판매상에게 자사 제품을 명확히 각인시키기 위한 마케팅 부문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 국내 농약 제조기업 제품 개발·마케팅 부문의 키맨(Key man)들을 만나 업계가 직면한 변화와 마케팅 성공·다각화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 △ 문인항 이사 / 한국삼공(주) 제품기획마케팅
- △ 박인곤 본부장 / 신젠타코리아(주) 제품개발등록부
- △ 최재명 상무 / (주)경농 마케팅본부 마케팅부문
- △ 김 원전무 / 동방아그로(주) 마케팅본부

※ 사진 왼쪽부터

“

농업인 요구사항 전문화, 다양화
작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 종합 해결책 제시

”

김 원 전무
동방아그로(주)



“

효과 빠르고 혼용 용이하며
저항성이 관리되는 제품,
친환경적 제품 수요 증가 추세

”

문인환 이사
한국삼공(주)



Q

고령화 등 농촌 구조적 문제 심화와 기후변화, 융복합 기술의 확산 등 다양한 변수로 농업 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약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 **최재명** 2019년부터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정착되면서 현장의 농업인과 판매상들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죠. 농업인 또한 인축·환경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또한 농업인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한 생력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 **김 원** 과거와 달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도 보다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들이 농약을 단순히 병해충을 잡는 약제 정도로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작물뿐만 아니라 기

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의 종합적 해결책으로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들도 현장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함께 겸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문인환** 기후변화로 병해충의 발생시기가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해충의 대발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 지역별 특이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가 더욱 까다로워진 거죠. 그렇다보니 농약 기업들도 더욱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수립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 **박인곤** 최근 세계 농업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원제의 개발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죠. 또한 병해충의 저항성 관리 측면에서의 ‘바이오컨트롤(Biocontrol)’과 생물활성을 조절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바이오테일러링

“

세계 농약시장, 환경친화적
생물다양성 보존 원제 개발 중점
바이오 생물 농약분야 급성장

”

박인곤 본부장
신젠타코리아(주)



“

농업인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율 높아져
인축·환경 안전성 확보 제품 선호
젊은 세대, 노동력 절감이 화두

”

최재명 상무
(주)경농



※이름 가나다순

트(Biostimulant)'의 개발에 방점이 찍힙니다. 세계 농약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5%씩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화학농약 시장의 성장은 1~2%로 둔화되나 바이오 생물 농약 분야가 10~20% 이상 급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결과입니다.

Q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농약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문인환** 과거에는 기업들이 제형 개발 등을 통해 농업인들을 이끌어 갔지만, 이제는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은 기업의 영업·마케팅 직원들만큼 지식 수준이 올라와 있어 함께 서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해서 효과가 빠르고 혼용이 용이하며 저항성이 관리되는 제품, 친환경적 제품에 대

한 수요가 늘고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 원** 최근에는 생력화를 위한 살포 장비가 새롭게 개발되고 장비에 적합한 농약의 제형 개발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드론만 해도 지금까지는 키가 작은 작물을 위주로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과수까지 정밀하게 살포가 가능해질 거예요. 이에 따라 살포 장비에 알맞은 액상수화제나 대립제 등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점차 쌍방향 채널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승부처라고 보고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최재명**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새로운 제형기술, 저항성 관리를 위한 방제(병해충 방제를 위한 효과적인 체계처리 방제법)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에 활용할 수 있는 날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생력화 제형기술, 저항성 관리 방제기술 연구개발 강화
안전하고 환경 영향 적은 신물질 기반 신제품 공급 전략
농약+타분야 융복합 서비스...온라인 채널 마케팅 강화



직접살포정제형 제품, 원예용 작물의 육묘상처리제 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노동력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품의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동영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정보에 동의한 농가에는 방제 정보와 예보 등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병해충 방제 전문가나 교수, 명인 등을 초청해 작물별로 전문가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려 합니다. 7~8개의 주요 작물을 선정해 작물별 년 2~3회씩 2,000~3,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니 결코 작은 행사는 아닙니다.



각기업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최재명** ESG 경영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동오그룹의 모든 사업도 ESG 기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룹 차원에서 경농의 농약뿐만 아니라 비료, 종자, 온실,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사업도 펼치고 있어서 모든 것을 융복합해 서비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수출 농가, 쌀 농업인 단체와 협업하고 있는 것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 **문인항** 한국삼공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김 원** 동방아그로는 제품 출하 중심의 영업과 실제 소비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두 분야로 명확히 나눠 시기별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3~5월까지 마케팅·영업 부서는 물론 전직원이 마케팅에 집중하죠. 지역 곳곳에 커피차를 제공해 제품 설명을 하고 샘플을 나눠주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또 작물별로 농사를 잘 짓는 농업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지역 현장의 요구사항, 추세 등을 청취하고 신규약제 개발 시 첫 번째 테스트마켓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인곤** 신젠타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신규 개발된 우수한 유효물질을 가장 빠르게 한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지요. 신

젠타글로벌에서는 매년 2개 이상의 신물질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젠타코리아는 더욱 안전하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신물질 기반의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마케팅 차별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문인환 한국삼공은 올해로 10회째 농업인을 가족·친척지인으로 둔 국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연이 선정된 농업인 마을에 작은 잔치를 열어주는데 그때마다 농업인들이 크게 감동받는 모습에 저희도 감동합니다. 또한 올해로 12회를 맞이

한 '한광호 농업상'은 '농업계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농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먹거리와 농작업용품 등을 담은 '희망나눔꾸러미'를 전달하며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 최재명 동오그룹은 '조비경농장학재단'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동오농촌재단'을 설립해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농촌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콘테스트, 지점별 일사일촌 결연사업,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의 활동을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경농이 150년, 200년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성장의 결과물을 꾸준히 농업인들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또 다시 우리의 제품을 소비하고 기업의 가치, 주주의 가치가 함께 살아날 수 있겠죠.



● **박인곤** 신젠타코리아는 신젠타청년농업인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역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종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탄소중립을 위해 한경대와 협업 연구 중이며 그로모어 농법으로 재배한 쌀을 임직원이 구매하면 동일한 양만큼 회사가 구입해 무료급식소 등에 지원하는 매칭 기부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 기업 독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신젠타코리아의 활동들이 모두 도농상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 원** 동방아그로는 불우이웃돕기와 저소득층 장학사업, 집 고치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이 필요한 곳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내가 소속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본인이 작게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농약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 **박인곤** 회사의 지향 가치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업계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 **문인환** 그렇죠.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업계가 함께 수행해 나아가야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 원** 조만간 기술력과 환경안전성 모두를 고려한, 농업인의 수요에 맞춘 정밀솔루션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친환경과 정밀농업 쪽으로 나아가야 농업도 살고 농약 업계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최재명** 농약에 대한 사회적 불신 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협회와 회원사 모두가 농약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산업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 **문인항** 가장 보람된 순간은 농업인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죠. 사과, 배 같은 과일은 물론이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보내와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도 기억해주고 농산물들을 보내오는 걸 보면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껴요.

● **박인곤** 농약 제품 개발 업무를 하다보니 효과 측면에서 농업인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초기 물질부터 개발해 아시아 최초로 등록·출시한 제품이 '최고'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최근에는 신젠타글로벌에서 들여와 여러 난관

속에서 등록된 신규 살충제가 출시 첫 해부터 찬사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 **최재명** 경농은 수도용 던지는 제초제인 점보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걸 보급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일일이 살포하지 말고 그냥 눈에 던지라고 하니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효과에 대한 의심은 당연하죠. 그렇게 10년 이상 고생하다가 2018년 즈음 연간 판매량 100만 봉을 넘어섰는데 그때의 희열은 말로 다 못하죠.

● **김 원** 보람된 순간이라기보다 마음 속에서 잊히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30년은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서 앉아 울고 계신 걸 봤어요. 약해로 밭작물이 피해를 입어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상을 충분히 해드리고 위로하며 돌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요. 돌아보면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눈빛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식탁 수비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가다

농산물 유통 길목에서 밤낮없이
부적합 농산물 걸러내는 '안전 지킴이'

2025년 신청사 개소로 검사 역량 'UP'
퀵처스전처리법·질량분석기 도입으로
검사 질 높아지고 더 빠르게



시중 유통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당장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만 해도 배추, 고춧가루로 쓰인 고추, 양파, 생강, 쪽파, 무 등등 많은 농산물이 재료로 쓰였다.

우리가 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해 섭취할 수 있는 이유는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장치들 덕분이다. 잔류농약은 이미 생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되지만 하여 출하 이후 남아 있을지도 모를 잔류허용치기준치 이상의 부적합 농산물을 판정하기 위해 도·소매 유통 단계에서도 다시 검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농산물 유통의 길목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걸러내는 건 전국 곳곳의 공영도매시장에 설치된 농수산물검사소의 몫이다.

서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지난 4월 29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위치한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찾아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다.



‘잔류농약 꼼짝마!’ 475종 농약성분 잔류 여부 ‘철저히’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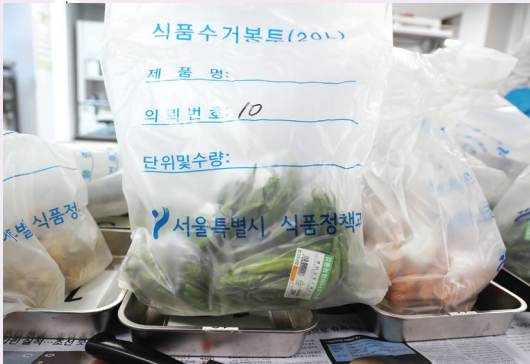
10:25 농산물 검사소 도착

“농산물 왔어요.”



조용하던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 갑자기 활기가 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면 당일 아침 관할 구역 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직판매장 등에서 무작위로 수거된 농산물이 검사소에 도착한다. 채소류, 과일류, 엽채류 등 몇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하며, 이날은 강동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당근, 대파, 청경채, 케일, 호박, 오이, 고추, 감자 등이 수거됐다.





잔류농약 검사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소속 농산물 수거반이 수거한다. 특별히 정해진 품목은 없지만 봄이면 봄나물,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한다.

00:30 품목별 구분·절단

‘탁탁탁’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담긴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검사대에 올려지자 하얀 가운을 입고 대기하고 있던 4명의 연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각자 봉투에 담긴 농산물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가식부위만 골라 적당한 크기로 잘라냈다. 잡담도 하지 않고 1초의 빈틈도 없이 매우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 쉴 새도 없이 빠르게 움직이세요?”라고 물었더니 한 연구사가 현답을 내놓는다. “혹시라도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 결과를 도출해야 소비자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마음 놓고 사먹을 수 있죠.”





88:80 분쇄·유기용매투입등 전처리

‘위잉-위잉’



연구사들이 큼직하게 절단된 농산물을 스테인레스로 된 낮은 트레이에 담아 건너편의 또 다른 연구실로 옮겼다. 이곳에서 연구사들은 곧바로 절단 농산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았다. 이후 시약스푼을 이용해 곱게 갈린 농산물을 유리로 만들어진 작고 긴 실험용 용기인 바이알에 담았다. 그리고는 전자저울에 올려 정확히 10g을 맞췄다.

긴 탁자와 벽면에 놓인 대형 믹서기, 전자저울, 개수대가 전부인 작은 연구실에서 믹서기를 깨끗하게 씻어 농산물을 갈고 바이알에 옮겨 담아 무게를 측정하는 작업이 수회 반복됐다.

88:55 잔류농약추출·정제·여과



분주한 작업이 끝나자 또 다시 연구사들이 바이알에 담긴 시료를 대형 검사기기들이 있는 또 다른 연구실로 옮겼다. 그러더니 시료에 유기용매(아세트나이트릴) 10mL를 첨가하고 5분간 원심분리기기에 넣어 혼합물을 분리했다.

퀘처스 잔류농약 분석법을 이용해 농산물에 남은 잔류농약을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러한 추출과정이 끝나면 정제·여과 과정이 이어진다. 원심분리기에서 가벼운 농약과 유기용매는 상층부에 분리되는데, 여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추출제를 넣고 원심분리한 후 필터로 여과해 액체 또는 기체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매일 23건 이상 농산물 무작위 수거
부적합 농산물 판정
전과정 '6시간 이내' OK



88:80 검사종료



이날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모든 검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나왔다. 12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각각 475종 농약 성분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데 6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0건. 오전 연구팀이 기분 좋게 하루 업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야간팀 연구사 4명이 검사 준비를 시작했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연구사들은 각각 주·야간 2교대로 나눠 주로 주간에는 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12품목,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야간 검사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경매 농수산물 11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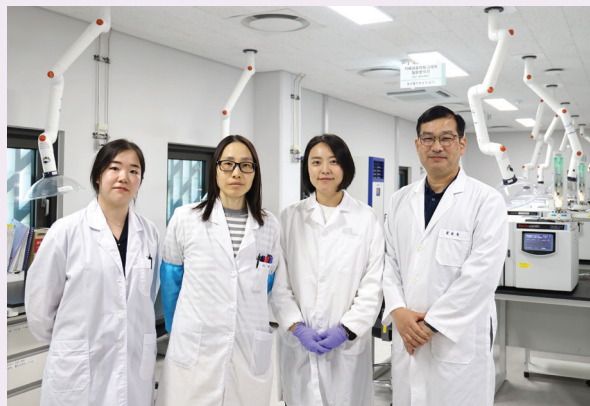
검사역량 강화...0.01ppm 까지 '신속'·'정확'하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선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농산물, 강남·강서 지역의 마트와 전통시장 유통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1999년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로 설치됐으며 올해 2월에는 신청사를 개소하고 첨단 시설과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갖추며 검사 역량 제고, 검사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남훈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주무관은 "신청사 개소는 서울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검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매 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잔류농약 시험법이 전면 개정되고 퀵체스 전처리법과 질량분석기가 도입되면서 검사의 질은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 과거에는 검사에 8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0.01ppm 수준의 아주 극미량의 잔류농약까지 6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지난 한해 동안에만 7,772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207건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했다. 이의 배경에는 연구사들의 열정과 끊임없이 노력이 자리한다.

윤은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적사 이상의 연구사들이 밤낮으로 검사에 매진하며 역량을 강화해 온 덕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에서도 우수 판정을 받는 등 분석 능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검사소도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실험 업무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오차 없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㉞



시민 먹거리 안전의 ‘충실한 파수꾼’

윤은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부적합률이 최근 들어 왜 더 늘어났냐고요?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이 더 많이 유통됐다는 뜻 아니냐고요? 속내를 살펴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적합률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지난해 약 2.7%의 부적합률을 기록 했다. 전년도의 2.1%보다 높다.

윤은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이같은 부적합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2021년 잔류농약 시험법의 전면 개정을 꼽았다. 시험법 개정으로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게 된 데다 신규 확대된 검사들이 2019년부터 시행중인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윤 소장은 “강남검사소는 더욱 촘촘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검사항목을 최대한 늘리려 노

2021년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
보다 정밀하고 촘촘한 검사 가능해져



2025년 2월 14일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신축이전 개소식 모습

력 중”이라며 “전에는 340종의 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했지만 이제는 빠른 시간 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한 475종으로 확대하며 부적합률이 소폭 증가됐다”고 분석했다. 그가 이처럼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드러내 놓고 자신있게 설명을 이어가는 건 잔류농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감 불식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 소장은 “최근 사용되는 농약은 대부분 저독성 농약이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산물은 안전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불안감이 크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접근성 강화, 소비자 참여와 소

통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소비자에게 접근하며 소비자 인식을 바꾸나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의 식탁과 한 명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 마음으로 늘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시민 먹거리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㉞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접근성 강화 소통 확대 등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



주목! 방제정보



한유경 연구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토마토의 주요 병해 및 방제요령

잣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등 시설토마토 주요 질병
과습재배, 밀식, 환기관리 미흡 등이 병발생 원인



국내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으로는 곰팡이병 37개, 세균병 8개, 바이러스 12개 정도가 알려져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에서 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병으로는 잣빛곰팡이병, 잎곰팡이병, 흰가루병, 잎마름역병, 꽃마름병 등이 있다. 시설에서의 작물재배는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제한적이며, 일반 노지재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병해의 종류와 발생양상도 포장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육묘와 정식후 시설 내에서 과습재배, 밀식, 환기관리의 미흡 등은 많은 병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채소의 병해방제는 병발생 전에 식물체를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잘 조절하고 예방차원에서 합리적인 시설환경관리와 토마토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선택한 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병해관리의 기본이 되겠다. 병해충 방제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ris.rda.go.kr)' 첫 화면 '농약 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마토 잿빛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

주로 잎, 줄기, 과실 등에 증상이 나타난다. 병원균은 식물체에 난 상처를 통해 쉽게 침입한다. 잎의 끝부분부터 갈색을 띤 병반이 생기기 시작한다. 증상이 잎 안쪽으로 점점 진전되며 V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심한 경우 고사한다. 과실에서는 암갈색의 병반이 원형으로 형성되며 분생포자가 밀생하여 회색으로 보인다. 심

하면 과실이 물러지면서 썩으므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 전후의 온도와 습한 환경은 병 발생을 조장하므로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여 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원균은 약제 내성이 생기기 쉬우므로 병 발생 초기에 다른 계통의 적용약제를 교호로 살포하여 방제한다.

잎곰팡이병

잎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잎 앞면에는 담황색 병반이 생기고 잎 뒷면에는 회갈색의 병반이 형성되며 병반 상에 비로도 형태로 곰팡이 포자가 밀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병은 아래 잎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위쪽 잎으로 점점 퍼지는 경향이 있다. 포자는 주로 바람에 의해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주변 식물체로 빠르게 전염되며 잎 뒷면의 기공으로 침입한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피해

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하우스 내부가 다습하지 않도록 지나친 관수와 밀식을 피하고 충분한 환기를 통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병 발생 초기에 병징이 있는 부위를 잘 제거하여 전염원의 밀도를 낮추고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토마토 잎곰팡이병

잎마름역병

주로 잎, 줄기, 과실 등에 병징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물에 데친 듯한 부정형 병반이 잎에 생기며 진전되면 병반이 갈색을 띠면서 점점 커지고 썩는다. 습도가 높으면 병반 상에 곰팡이 포자가 다량 형성되어 흰색으로 보인다. 줄기의 감염 부위는 흑갈색을 띠며 물러지고, 병든 과실은 암갈색을 띠며 물렁하게 썩는 증상을 나타낸다. 주로 겨울~봄철 시설하우

스에서 잘 발생한다. 배수와 환기를 잘 시켜 하우스 내부가 저온다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 발생 초기에 병든 부위를 빨리 제거해주고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방제한다.



토마토 잎마름역병



식물체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한 환경조건 조절
등록약제 선택한 후 안전사용기준 준수가 기본

흰가루병

잎, 줄기, 과경 등에 발생한다. 처음에는 흰색의 병반이 작게 형성되나 점점 커진다. 병이 진전되면 잎 전체에 흰 가루를 뿌린 듯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

면 피해 부위가 말라 죽는다. 특히 하우스 내부가 건조하면 병이 발생되므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 병 발생 초기에 증상이 나타난 부위를 신속히 제거하고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토마토 흰가루병

풋마름병

처음에는 낮에 지상부의 잎이 시들지만 밤에 회복하는 증상이 3~4일 정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에 병든 식물체는 푸른 상태로 시들어서 죽는다. 땅 속에 있는 병원균이 뿌리에 생긴 상처를 통해 침입하며 병든 식물체의 지제부를 갈라보면 내부가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뿌리를 통해 병원균이 감염된 후 병원균이 도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순지르기 작업시 작업도구 등에 오염되



토마토 풋마름병

어, 건전주 순지르기시 2차 감염이 일어난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우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심하다. 토양 내 병원균이 존재하는 경우 수로를 따라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새로운 작기에 들어가기 전에 토양을 담수하거나 태양열 소독 등으로 철저히 소독한다.

궤양병

궤양병은 24~28℃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증상은 하엽이 시들고 처지고 작은 잎의 가장자리에 괴사가 일어나고 끝부분이 마른다. 병이 진전되면 잎은 부정형으로 갈색의 괴사 부분이 생기며 식물체는 빠르게 시들고 다시 회복되지 않으며 마르게 된다. 심해지면 잎이 노랑게 서서히 말라 오그라든다. 작물이 성숙되면서 세균 감염은 더욱 진전되어 잎이 마르고, 노란색으로 변하고

과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과실은 줄기에 매달려 있지 못하고 쏟아져 내린다. 궤양병 역시 뿌리 가까운 부위의 줄기를 잘라보면 도관부가 갈변되어 있다. 풋마름병과 마찬가지로 세균에 의한 병으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며, 습도가 많은 시간대에 농작업을 피하여 실시한다. ㉔



토마토 궤양병



작물도, 꿀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

농약의 올바른 사용은 공존의 첫걸음



꿀벌 보호를 위한 농약사용방법



[꿀벌독성 표기문자]

- ① 농약 사용자는 제품별 꿀벌 독성 정도에 따라 사용가능 시기가 달라짐으로 반드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문구를 확인후 사용한다.
- ② 꿀벌 독성 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 ③ 지역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인과 양봉농가간 농약 사용계획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작물보호협회
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주)한얼사이언스

‘골드킹’ 미탁제



콩·들깨발 잡초-광엽 화본과·사초과 잡초까지!

‘골드킹’은 콩밭과 들깨밭 헛골에 사용하는 경엽처리 제초제이다. 광엽 및 화본과, 사초과 잡초까지 동시 방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살포 시 식물 체내로 흡수 이행하여 3~5일 후부터 잡초의 생장은 정지되고, 10~15일 후에는 완전히 고사된다. 또한 ‘골드킹’은 안전성이 입증된 약제로서 토양 속 신속히 분해되어 후작물에 안전하며, 비가 오거나 토양에 의한 이동성이 없어 땅에 떨어져도 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경농

‘디저스’ 유제



가루이·굴파리에 탁월! 깔끔한 육묘 필수품

2025년에 새롭게 선보인 ‘디저스’는 원예작물의 주요 매개충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는 차세대 복합 살충제다. ‘디저스’는 경농의 총채벌레·나방 방제 전문약제 ‘캡틴’과 진딧물·가루이류에 특화된 ‘팡파레’의 성분을 결합해 기존 단일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이다.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 진딧물, 가루이와 나방, 노린재까지 매개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으며, 약제 처리를 개화기, 착과기, 수확기 등 시기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주)농협케미컬

‘락다운’ 액상수화제



돌발 외래해충 탁월...원예용 종합살충제

‘락다운’은 과수 및 채소에 발생하는 다양한 해충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원예용 종합살충제이다. 특히, 합성피레스로이드계의 델타메트린과 테트라믹에시드계의 스피로테트라멧의 합제로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과 같은 외래해충은 물론 깍지벌레, 노린재, 진딧물 등 다양한 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다.

또한, 침투이행성이 있어 약액이 맞지 않은 부위까지 이동하여 이미 발생한 해충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 해충도 방제가 가능하다. 현재 사과, 배, 복숭아, 고추, 배추, 인삼 등 12개 작물에 등록이 완료됐다.

(주)동방아그로

‘스케일’ 액상수화제



기후변화 시대, 깍지벌레 방제 새로운 혁명

‘스케일’은 환경변화에 발맞춘 기후위기 대응형 해충 방제 솔루션 제품이다. 주성분인 뷰프로페진(20%)은 깍지벌레의 부화와 산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덤프로피리다즈(5%)는 해충의 균형 감각을 저해해 섭식을 중단시키며 치사에 이르게한다.

‘스케일’은 깍지벌레 방제 최적인 살충제로서 특히 감나무주머니깍지벌레, 화살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등에 대한 우수한 방제 효과를 낸다. 또한 유용곤충과 천적에 대한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성보화학(주)

‘단골맥스’ 미탁제



콩밭, 들깨밭 헛골처리 전문 제초제

‘단골맥스’는 화본과 잡초 방제효과를 업그레이드시킨 콩밭, 들깨밭 헛골처리 전문 제초제이다. SB성보의 기존 제품 ‘단골’을 개선해, 잡초 발생 후 경엽처리로 광엽과 사초과 잡초까지 동시 방제효과를 나타낸다. 피, 바랭이, 명아주, 쇠비름 등 화본과 잡초에 살포 시 흡수 이행하여 3~5일 후 잡초의 생장이 정지하며 10~15일 후 고사한다. 특히, 빗물이나 토양에 의한 이동성이 없어 땅에 떨어진 약제가 후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분해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콩·들깨(씨)에 등록됐다.

신젠타코리아(주)

‘엘레스탈’ 입상수화제



자라나는 새싹에 진딧물 잡는 입상수화제

‘엘레스탈’은 약제 처리 당시 없었던 새로 자라난 순에도 효과가 이어지는 차별화된 지속력을 자랑한다. ‘엘레스탈’은 신젠타 글로벌에서 최신 개발한 ‘티니비온 (TINIVION™)’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세대의 작물보호제로서, 해충의 생체막 형성에 간섭하여 진딧물과 가루이와 같은 흡즙성 해충을 방제한다. 가루이 약충에 대한 우수한 효과와 천적과 화분매개 곤충에 대한 안전성이 큰 특징이다. 현재 고추,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 오이, 사과, 배 등 11종의 작물에 등록됐다.

(주)팜한농

‘헬리캡’ 액상수화제



저항성 멸구 등 수도 해충 싹 잡는 항공경작

‘헬리캡’은 벼멸구, 애멸구, 먹노린재,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콩 파밤나방과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 다양한 해충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는 종합 살충제이다. 설펍사플로르와 디아마이드 계통 중에서도 방제 스펙트럼이 넓은 사이클라닐리프롤을 함유해,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에 저항성을 보이는 멸구에 방제효과가 탁월하다.

침투이행성도 우수해 잎 사이사이에 나방과 노린재까지 방제한다. 벼 흑명나방과 먹노린재, 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무인항공 방제에도 등록됐다.

한국삼공(주)

‘플로빈’ 액상수화제



눈으로 확인하는 전천후 종합살균제

‘플로빈’은 아족시스트로빈(8%)과 플로릴피콕사미드(8%)의 성분을 함유한 종합살균제이다. 두 원제 모두 예방 및 치료 뿐만 아니라 침달성 효과까지 함께 나타낸다.

아족시스트로빈은 작물 내에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전체가 골고루 분포하는 제한적 침투이행성을 지녀 장기간 보호효과를 발휘한다. 플로릴피콕사미드는 빠르게 전체적으로 분포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시설하우스 내 주로 발생하는 탄저병, 흰가루병, 노균병, 잣빛곰팡이병, 덩굴마름병에 등록됐다.

경북지역 산불피해 농가돕기 ‘온정의 손길’

빠른 피해복구-일상회복을 기원하며



(주)경농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1억원 기탁 창사 70주년 기념행사 축소해 성금 마련

(주)경농(대표이사 이용진)이 역대 사상 최대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총 1억원을 기탁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했다.

이용진 대표이사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상 회복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성금기탁의 취지를 밝히고 “경농 및 동오그룹의 농업솔루션을 활용하여 농경지의 피해 복구 및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영농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는 경농과 동오그룹은 창사행사를 축소하고 그 예산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기탁했다.



(주)팜한농



산불피해 농가 5억원 상당 농자재 기부 임직원은 고향사랑기부제로 3천만원 기부

(주)팜한농(대표이사 김무용)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5억원 상당의 농자재를 기부했다. 팜한농은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농가들의 일상 회복과 영농 재개를 응원하며, 지난 4월 21일부터 작물활성제 2만 개, 고추 모종 5만 주, 비료 5천포 등을 이재민들에게 공급했다. 이와 더불어 팜한농 임직원들은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동참해, 총 3천3백 만원을 기부했다.

팜한농 관계자는 “실의에 빠져 있는 산불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곁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나눔 꾸러미’ 1,200여개 제작 지원 읍면사무소 방문 간편식·농작업 용품 전달

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동우)이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농가들을 돕기 위해, 3천만원 상당의 ‘희망나눔 꾸러미’ 1,200여개를 제작하여 지원했다.

한국삼공은 이번 산불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등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동지점 직원들과 함께 산불 피해를 위로하고, 간편식 라면, 국수, 누룽지, 초코파이 등과 복구작업에 도움이 되하고자 농작업 용품 등을 전달했다.

경북지역 읍면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한국삼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희망나눔 꾸러미’로 인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주는 기업 정신에 존경심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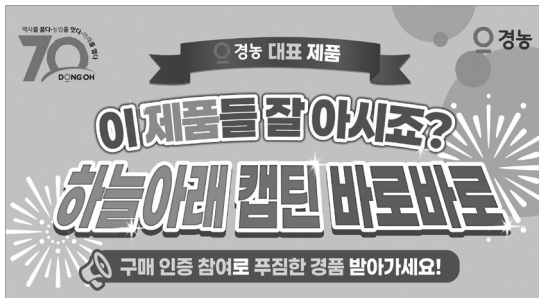
한국삼공(주)



◎ (주)경농 ◎

경농대표 3종제품, 구매인증 이벤트 진행

창사 70주년 기념, 농업인 성원 보답 다양한 경품 제공



(주)경농(대표이사 이용진)이 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사 대표 3종의 제품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취, 잡관목은 물론 잔디에 발생하는 잡초까지 방제하는

‘하늘아래’, 총채벌레, 고령 나방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캡틴’, ‘맛은 부위만 고사시키는 효과 빠른 비선택 성제초제 ‘바로바로’가 그 주인공이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4월에는 ‘하늘아래’ 5월에는 ‘캡틴’을 진행했고 6월에는 ‘바로바로’ 제품 구매 인증사진 촬영해 1899-0584로 문자를 보내면 정상 접수된다.

최재명 마케팅본부 마케팅부문장은 ‘지난 70여년간 변함없이 경농을 아껴주신 농업인 분들을 위해 항상 효과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다양한 경품을 제공해 당첨의 즐거움과 함께 풍성한 한 해 농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신젠타코리아(주) ◎

‘청년농업인네트워크’ 4기 발대식 개최

MZ세대 청년농업인 성공적인 영농활동 돕는 프로그램



신젠타코리아(주)(대표이사 조승영)는 지난 5월 13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는 ‘신젠타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4기 발대식을 익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신젠타 청년농업인 네트워크’는 영농 초

기의 청년농업인을 모집해 농약 사용 및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년농업인 46명을 비롯하여 폴 럭스턴(Paul Luxton) 신젠타 아시아 지역 총괄 사장과 조승영 신젠타코리아 대표이사 등 신젠타 임원진들이 함께 참석했다.

조승영 대표이사는 “신젠타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협 요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귀기울여 향후 솔루션 개발에 주요한 바탕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SB성보(주) ◎

SB 성보, 사명 및 CI 변경 선포식 성료

‘Sustainable Growth Beyond’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향한 도약



SB성보(주)대표이사 윤정선, 전 성보화학)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샴페인 홀에서 ‘SB성보 CI 및 사명 변경 선포식’을 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함께 SB그룹 브랜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계, 학계, 문화계 주요 인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SB성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은 ‘새로운 미래를 열다. Sustainable

Growth Beyond’를 주제로, SB성보의 64년 역사와 주요 성과를 되짚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윤정선 대표이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SB는 ‘Sustainable Growth Beyond’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변화에는 도전이 따르지만, 우리는 이 변화로 성장하고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며, 가치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사옥 ‘SBwith 타워’로 이전

쾌적한 공간·유연한 조직문화 형성, 업무 시너지 극대화

SB성보(주)가 지난 4월 24일, 서울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신사옥 ‘SBwith 타워’로 본사를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이번 사옥 이전은 단순한 사무 공간 이동을 넘어, SB성보의 새로운 경영이념 ‘SB with’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아울러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을 중심 가치로 삼는 SB성보의 철학과 비전을 공간에 담아 설계된 상징적 공간이다. 신사옥은 지상 6층·지하 2층 규모로, 업무 효율성과 임직원 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공유 오피스 개념을 적용하여, 협업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업무 공간이 층별로 구성됐다.

윤정선 대표이사는 “SBwith 경영이념 아래, 각 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브랜드로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농업의 가치사슬을 하나로 연결하는 애그테크(AgTech)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팜한농 ◎

연암대와손잡고농업인재육성

농업분야 전문인재 육성 협약 ‘팜에코 러닝센터’ 개소



(주)팜한농(대표이사 김무용)이 연암대학교와 ‘농업분야 전문인재 육성에 관한 협약’을 지난 4월 17일 체결했다.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무용 팜한농 대표와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20여 명

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팜한농과 연암대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첨단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함께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팜한농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한 뜻깊은 시작”이라며, “역량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팜한농은 또 이날 연암대학교 내에 팜한농 임직원을 위한 전용 교육 공간인 ‘팜에코 러닝센터(Farm ECO Learning Center)’ 개소식도 열었다. 이 센터는 조직 적응 프로그램, 직무 역량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 (주)팜한농 ◎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와공동연구협약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병해충 방제 솔루션 확대



(주)팜한농(대표이사 김무용)이 지난 4월 9일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와 농업유전자원을 활용한 작물보호제 개발 공동 연구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남경윤 팜한농 작물보호사업부장과

황경숙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벼 잎집무늬마름병과 원예작물의 탄저병, 흰가루병, 잣빛곰팡이병, 무름병, 나방류 등의 방제에 효과적인 미생물을 이용해 바이오 작물보호제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작물보호제 저항성 병해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팜한농은 미생물 균주 배양 및 제형화, 실증 시험을 맡아 바이오 작물보호제 실용화를 추진하고,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는 다양한 병해 및 나방류 방제에 유용한 미생물 소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 (주)한얼사이언스 ◎

중기부 '도약프로그램' 최종 선정

혁신 기술로 국내외 시장 확장 본격화



(주)한얼사이언스(대표이사 심봉섭)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한얼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차별화된 제형 기술이 약제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환

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았다. 또한, 신규 미생물 연구를 통한 차세대 방제 소재 개발에 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얼사이언스는 이번 정부 지원을 활용해 연구개발 속도 가속화로 국내 농업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봉섭 대표이사는 “이번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한얼사이언스의 기술력과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국내외 사업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농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재)한광호기념사업회 ◎

제12회 '한광호농업상' 후보자접수

농업대상, 농업연구상, 농업공로상 총 1억원 상금 수여



(재)한광호기념사업회(이사장 한태원)는 국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농업계 학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12회 한광호 농업상 후보자를 오는 6월 30일(월)까지 접수 받는다.

한광호 농업상은 농업대상, 농업연구상, 농업공로상 세 부문에서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며 농업의 발전과 농업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한 자로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농업인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업적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업적 ▲국내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업적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에 기여한 연구 업적이다.

후보자는 약 5개월 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월초 각 부분별 수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한광호 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hkhprize.co.kr) 또는 전화(02-2287-2965)로 문의하면 된다.



양상추에 농약과 영양제 혼용·살포에 의한 이상 증상



이인용 기술위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경남에서 양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농약판매상에서 농약 2종과 영양제 3종의 혼용·살포를 추천받아 살포하고 양상추 잎이 타는 듯한 증상(엽소), 포기 괴사 등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례이다.

재배 현황



양상추 이상 증상이 발생한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6동(동당 826m²)으로 2024년 10월 9일에 정식한 후 잘 자라던 것이 10월 중순부터 잎이 노랗게 마르는 증상을 보였다. 이런 내용을 농약판매상에 문의하니 농약 2종(살균제 1종(균핵병 및 흰가루병 방제용), 살충제 1종(파밤나방 방제용)) 그리고 영양제 3종을 추천받아 10월 23일에 혼용·살포했다. 농약과 영양제를 혼용·살포한 후 양상추가 4~5일만에 1/3면적이 엽소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고, 50% 정도 됐을 때(10월 29일) 양상추 재배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에 농약피해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장조사 결과



2024년 12월 9일에 비닐하우스 6동에서 재배 중인 양상추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동일한 증상을 보였다. 양상추의 잎맥 사이가 타는 듯한 증상(엽소, 葉燒), 갈변 고사 등은 외부 물질 유입에 의한 피해로 판단됐다. 즉 농약 2종과 영양제 3종을 혼용 살포에 의한 부작용 피해로 의심됐다.





양상추 생육장해 피해 포장전경 및 현장 조사



양상추 생육장해 피해상황 및 피해증상

양상추의 평균 피해율 55%(포장별로 25~90%)를 보였다. 정상적인 양상추의 초고(초장) 30cm, 구둘레 53cm, 잎수 18잎매/주당이었다. 반면에 피해포기는 초고 13cm, 구둘레 33cm, 잎수 10매/주당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재배관리 소홀 또는 영양학적인 생리장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토양은 행곡통(미사질식양토)으로 배수는 약간 양호한 조건으로 토양환경이 양상추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병해충을 달관으로 조사한 결과, 무름병이 극소수 관찰됐다. 그러나 양상추의 잎맥 갈변 및 잎끝 갈변 고사, 생육 부진 등의 이상 증상은 병해충 피해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종합 검토의견



양상추의 잎맥 갈변 및 잎끝 갈변 고사, 생육 부진 등의 이상 증상은 혼용가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약 2종과 영양제 3종을 무분별하게 섞은 후 살포하여 유발된 약해로 판단됐다. 이런 약해는 살포 당시 기상 조건에 따라 발현되므로 가능한 농약과 영

양제는 혼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양상추 재배농에게 당부했다. 특히 지상부 피해가 심한 양상추는 뿌리도 마르고, 새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주는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기술지도 방향



농약은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살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과 제4종 복합비료(영양제)와 혼용·살포하는 것은 농약관리법 위반이다. 따라서 농약과 영양제를 혼용 살포하고 권장한 농약판매상, 그것을 재차 확인하지 않은 농업인도 각각 책임이 있으므로 상호 간 조정할 사항으로 국가기관에서 사인간(私人間)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양상추 결구 적온은 10~16℃이므로 이상이 없는 정상 양상추는 잘 관리할 것을 양상추 재배농에게 당부했다. 추후 확인한 결과, 농약판매상이 양상추 재배농과 합의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했다고 한다. ㉞



벼 제초제 비산에 따른 논콩 생육 이상 증상

경남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인근에서 바람 부는 날 드론을 이용하여 논에 벼 제초제를 살포한 후 인접한 논콩 작물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례이다.

재배 현황



논콩 이상증상이 발생한 피해면적은 3,000m²(약 900평)으로 논콩 재배 농가에 따르면, 대왕 논콩 품종은 2024년 7월 20일경까지 정

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었으나, 인접한 논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3가지 벼 제초제가 살포된 후 논콩에 이상 증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벼 경작자는 드론 방제업자에게 인접한 밭에 논콩이 재배 중이니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포를 요청하고 살포당일 현장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용된 벼 제초제는 A, B, C제품이었으며, B 제품을 제외한 두 제품은 광엽 작물, 특히 논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조사 결과



2024년 9월 11일에 피해를 입은 논콩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 논콩의 엽병이 부풀어 오르고 일부 꼬이는(twist) 증상은 호르몬 제초제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이다. 전체 콩 재배 면적의 약 45%가 피해를 입었으며, 즉 옆논과 인접한 면적으로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콩잎과 엽병에 이상증상이 발생했다. 다른 잠재적 원인으로 논콩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병해충에 대한 검사도 실시됐다. 콩잎에 메뚜기, 풍뎅이, 나방류 등 해충 피해 증상이 다수 관찰됐고, 역병에 감염된 포기도 있었으나 논콩의 이상 증상과는 인과관계가 없었다.



논콩 포장 제초제에 의한 피해 상황조사



논콩의 엽병이 부풀어 오르고 꼬이는(twist) 증상

종합 검토의견



논콩 작물에 이상증상을 보인 것은 인접한 논에서 살포한 벼 제초제가 바람에 날려 유발된 약해로 판단됐다.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벼 경작자가 논콩 재배자에게 피해보상하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직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합의했다.

또한 3가지 제초제 중 B제품만이 콩에 등록된 제초제로 A, B제품이 콩밭에 비산된 것은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위반에 해당한다. 생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벼 제초제 피해를 받은 콩은 폐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술지도 방향



벼 경작자에게 앞으로는 바람이 거의 없는 오전에만 항공 살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방제업자와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규정 준수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논콩 재배 농가에게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탄저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기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와 보호장비의 중요성



양시영 연구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는 농업인의 노고가 깃들여 있다. 특히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일은 고된

노동이지만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농약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의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은 익숙하지만, 농약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의 농약노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농약은 살포될때 미세 입자들로 공기 중에 퍼지며,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또한 농약을 혼합하거나 방제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농약노출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농약노출은 농업인에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약노출,
어떻게 평가할까?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농약이 등록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농약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산출하고, 그 노출량이 건강에 유해한지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절차이다.

농약살포자에 대한 노출량을 평가할 때는 농업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기반의 노출치나

농약 등록전 농약살포자에 대한 3단계 위해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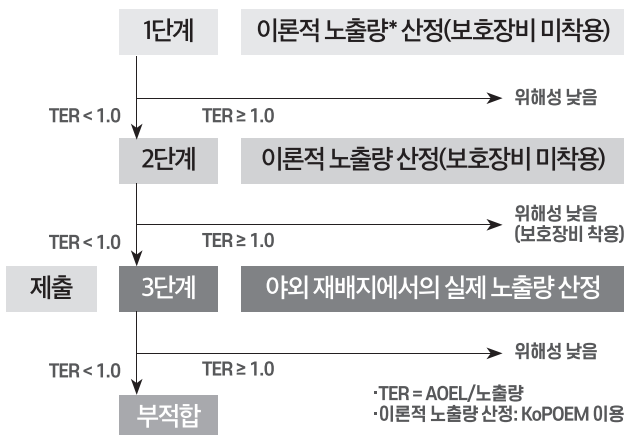
안전한 사용기준 설정·농약등록 판단의 핵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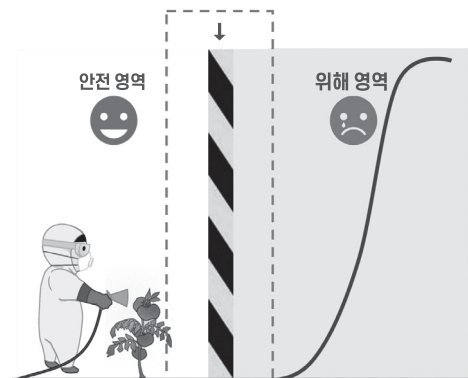
리오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농약을 사용했는지, 대상 작물은 무엇인지, 살포기와 살포물량은 어떠한지, 그리고 보호장비는 착용했는지 등 농약노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노출량을 산출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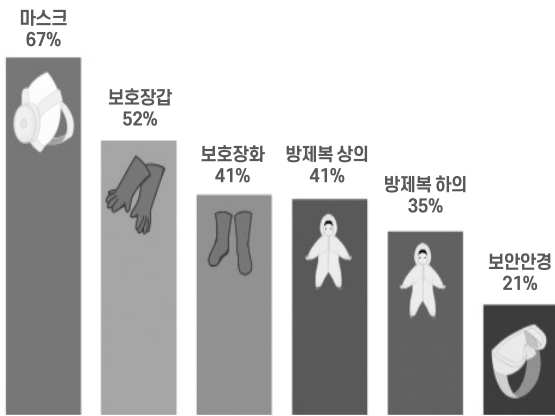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한국형 농약살포자 노출량산정모델(KoPOEM, Korean Pesticide Operator Exposure Model)을 활용하여 보호복 착용 유무에 따른 이론적 농약노출량을 산정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단계별 농약살포자 위해성평가 모식도



안전기준 (농작업자노출허용량)



보호장비 착용 현황



올바른 농약살포자 복장

참조 : 한국농약과학회지 Song et al, 2017

1~2단계에서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3 단계에서는 야외 재배지에서 노출량측정시험을 통해 노출량을 산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각각의 단계에서 농약노출에 대한 위해성은 농약노출 안전기준인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과 농약노출량의 비를 나타내는 독성노출비(TER)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즉, 독성노출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독성노출비가 1보다 작으면 위해성이 높아 등록이 불가하게 된다.

이처럼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노출가능성, 독성강도, 농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기준 설정 및 농약등록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농약노출 안전, 보호장비 착용으로 지켜요



농약살포자는 대부분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농약에 노출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보호장비의 착용은 필수적이다.

보호장비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농약노출을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닐하우스 재배작물 중 딸기에 대한 농약 노출량 산정연구’를 통해 농작업복을 착용할 경우 48% 농약 노출 감소, 마스크, 장갑 및 농작업복과 같은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함께 착용했을 경우 87% 농약 노출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엽채류 등록 농약에 대한 농약노출량 산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갑을 착용했을 때 약 81% 농약노출 감소, 장갑과 보호복을 함께 착용할 경우에는 약 92% 농약노출 감소를 증명했다.

이처럼, 보호복의 착용은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불편함을 이유로 보호복 착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손과 호흡기처럼 농약노출이 집중되는 부위를 보호하는 장갑과 마스크의 착용은 각각 52%, 67%에 머물고 있으며, 방제복과 장화 착용 비율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보호장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단체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㉔



응애 방제
수준이 다르다! **노블레스**
액상수화제

팜한농

고객상담 1644-0901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출처 : 2025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교재



작물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이 다른가?

◆ 배추,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사
용하는 농약을 통일해 주면 안되나?

◆ 왜 똑같은 농약을 과채류에는 사용할
수 있고, 엽채류에는 사용할 수 없나?



작물별 특성(병해충 종류, 발생시기,
약해 정도, 잔류량 차이 등), 농약별

특성(잔류 기준 설정관리, 독성별 사용제한, 이
화학적 특성 등) 등에 따라 같은 농약이라도
사용가능 작물은 다르다. 따라서 작물별로 등
록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
야 한다.

농약 성분별로 정해진 이론적 1일최대섭취량
의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새로운 작물의 잔
류기준 설정이 안된다.

국가에서는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해 직권등
록을 추진하고 있다.(주요작물 30여개, 소면적
작물 200종 이상)



? 토양 소독 농약도 작물별 등록해야 하나?

◆ 작물이 아닌 토양 병해충 방제용 농약인데, 왜 개별 작물별로 사용여부를 정하나?



작물별, 농약별 특성 등으로 인해 토양처리 농약도 작물별로 등록함이 원칙이다. 2018년부터 살균·살충 효과는 대표 작물 시험으로 검증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토양 처리된 농약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약해)과 잔류농약 문제로 인해 개별 작물별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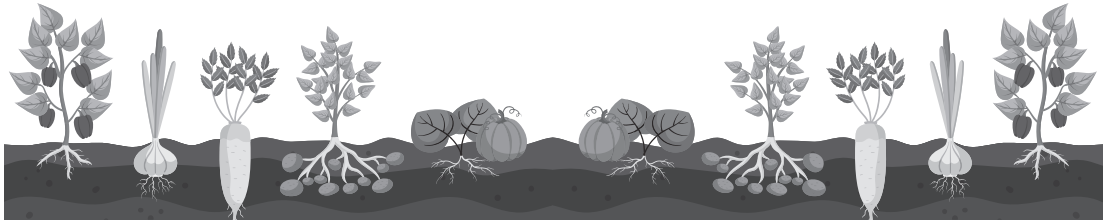
토양처리 농약은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작물 재배 중에는 사용하면 안되고, 파종 정식 전에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입제를 물에 희석하여 살포, 미등록 작물에 사용, 정해진 양보다 많이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

토양 병·해충은 대부분 땅속에서 피해를 주므로 파종 정식 전에 방제하며, 토양 살균·살충제는 농경지에 뿌린 후 흙과 골고루 섞어야 재배 기간 동안 방제효과가 있다.

? 섭취부위별로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하나?

◆ 식생활 변화로 동일한 작물의 섭취 부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섭취부위 다른 작물은 고구마(뿌리, 줄기), 당귀(잎, 뿌리), 들깨(잎, 종실), 마늘(마늘, 꽃마늘), 고추(과실, 잎), 무(잎, 뿌리), 뽕나무(열매, 잎), 유채(잎, 종실), 호박(과실, 잎) 등으로 작물별 재배방식에 따라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재배 자체를 별도로 하는 작물인 당귀(잎/뿌리), 들깨(잎/종실), 유채(잎/종실), 뽕나무(오디/잎), 고추/고추(잎), 무/열무와 같이 개별 작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다.



부산물로 재배되는 작물인 고구마, 마늘, 무, 호박 고구마줄기, 풋마늘, 무잎, 호박잎의 식용 여부를 주의사항 표시하고 있다.

작물명(현장에서 쓰이는 명칭과 농약등록 작물명)에 혼란이 있으면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의2)에서 작물 명칭 확인 가능하다. 예로는 동초, 섬초, 춘채, 유채 나물은 모두 유채(잎)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이 부족하면?

◆ 새로운 작물이나 병해충이 생겼는데, 왜 내가 재배하는 작물에는 농약 등록을 안시켜 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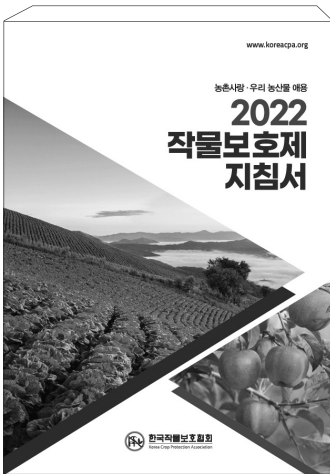
국가는 농약 직권등록 수요 조사를 연중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받고 있다. 제출방법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회원 가입

류, 재배지역, (선택) 농약품목명, 기타사항을 제출한다.

제출될 수요는 검토 후 익년도 직권시험에 반영될 수 있다. 직권등록은 실증시험(1~2년), 전문가 평가 및 기준 설정(6~10개월)을 거치므로 2~3년 소요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방제가 시급함에도 등록 농약이 없는 경우, 농진청과 별도로 협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농약 직권시험을 수행 가능하다. ㉠

2025 작물보호제지침서10월경 발간 예정 전산화작업 및 온·오프라인 통합 작업중



한국작물보호협회(협회장 염병진)은 2025년 상반기 발간 예정이었던 ‘2025 작물보호제지침서’는 전산화 작업 및 온·오프라인 통합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오는 10월경 발간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에 협회는 지침서 발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책자 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개인 및 관계기관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적으로 신청문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

“농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대한민국 국민 살충제

에이팜®





어버이날 최고 인기 선물은 ‘용돈’

**어린이가 받고 싶은 선물 1위 ‘스마트폰’
마음이 어린이인 ‘어른아’들도 선물 대상**

5월에는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대표적이다. 물론 5월 15일 스승의날, 5월 19일 성년의날도 중요한 기념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단연코 어린이날은 어린 시절 누구나 손꼽아 기다렸을 법한 날이고,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이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포켓서비스를 통해 이번 가정의 달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자.

출처 : 포켓서베이, 뉴시스, 헬스경향



어린이날 지갑 여는 부모 & 조카바보들

어린이날 선물, 평균 3~5만원대 온라인-대형마트에서 주로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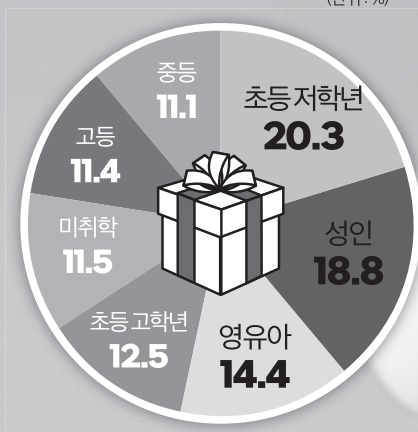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에 본인의 자녀를 위해 어린이날을 챙긴 부모들은 67.5%(195
명)이었고, 사랑스러운 조카를 위해 선물을 구매한 이모·삼촌
들이 32.5%(94명)이었다. 조카 바보를 자처한 이모·삼촌 중
에는 소수이지만 10대들도 있었다.

이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구입할 때 가장 애용하는 채널은 인
터넷 쇼핑(32.9%)과 대형마트(31.8%)로 나타났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모두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
는 쇼핑 채널이며, 뒤이어 백화점(18.3%), 홈쇼핑(9.0%), 카
카오톡 선물하기(7.3%) 등이 어린이날 선물 구매에 많이 이용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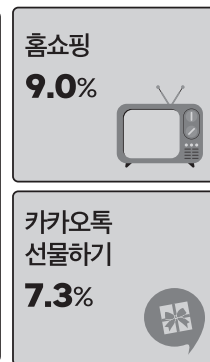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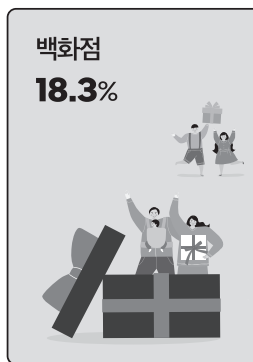
부모 및 이모·삼촌들은 이번 어린이날 선
물로 '3~5만원 미만(34.9%)'을 지출한 경
우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10대(66.7%)와 20대(55.9%) 사이
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1~3만원 미만'
이 어린이날 선물의 평균 금액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날 선물 받는 자녀 연령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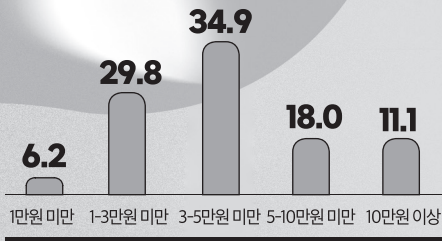


◆ 어린이날 선물 구매 채널 TOP 5



◆ 어린이날 선물 예산

(단위: %)



롯데멤버스가 실시한 또다른 조사에서는 평균적인 어린이날 선물 비용이 더 높게 발표됐다. 어린이날 선물에 용돈까지 포함시킨 탓인지, 해당 조사의 참여자들은 자녀에게는 12만원, 조카에게는 13만원까지 지출할 계획이라면서, 완구류(19.7%), 디지털기기(13.4%), 의류·패션잡화(10.6%) 등보다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선물(35.8%)을 가장 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사실은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자녀들의 연령을 살펴보니, 초등 저학년(20.3%) 다음으로 성인(18.8%)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유아(14.4%), 초등 고학년(12.5%), 고등학생(11.4%), 중학생(11.1%)보다 많은 수의 성인 자녀들이 여전히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주인공은 어린이라는 통념이 깨진 것이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몇 살이든 한 없이 어린 아이로 보이는 까닭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린이날의 추억을 뒤로 한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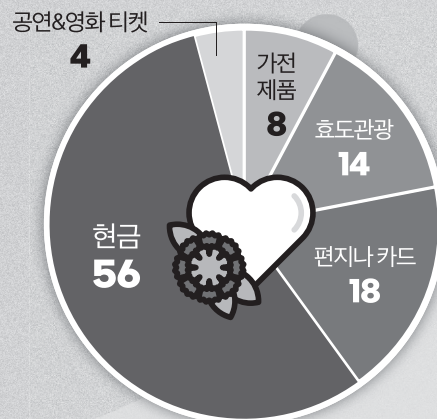
가장 좋아했던 어린이날 선물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이 최고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어린이날 선물로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20.8%)'과 '문화 및 체험(19.8%)'을 가장 많이 회상했다. 약간의 차이로 인형, 로봇 등의 '완구류(17.7%)'와 상품권, 용돈 등의 '현금성 선물(14.8%)'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책가방, 필통과 같은 '문구류(9.4%)'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과거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날을 잡기가 쉽지 않아 어린이날이 1년 중 얼마 안 되는 그런 날이었을 것이다. 주 5일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6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겼다는 OECD의 분석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부모 세대가 얼마나 긴 시간을 노동에 할애했는지 짐작할 수

◆ 어버이날, 자식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단위: %)



부모가 주기 싫은 선물 TOP3

중학교 재학 자녀

1st 스마트폰 2nd 태블릿 3rd 노트북

초등학교 재학 자녀

1st 스마트폰 2nd 태블릿 3rd 노트북

유치원 재학 자녀

1st 태블릿 2nd 스마트폰 3rd 노트북

어린이집 재학 자녀

1st 스마트폰 2nd 태블릿 3rd 노트북

자녀가 좋아할 선물 TOP3

중학교 재학 자녀

1st 현금 2nd 스마트폰 3rd 태블릿

초등학교 재학 자녀

1st 스마트폰 2nd 현금 3rd 작동완구

유치원 재학 자녀

1st 스마트폰 2nd 작동완구 3rd 조립완구

어린이집 재학 자녀

1st 작동완구 2nd 조립완구 3rd 의복

있다. 자녀에게는 하루종일 부모와 놀 수 있는 어린이날도 연례행사일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인형극을 관람하거나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등 비일상적인 체험을 즐기는 날이었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이날을 특별하게 추억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 싶다.

가장 받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 '스마트폰'...부모세대는 비선호 1위

한편 와이즈캠프가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날 선물로 스마트폰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유명메이커 의류&신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게임기나 자전거 등 장난감, 나만의 PC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중 절반이 받고 싶은 선물로 스마트폰을 선

택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들이 주기 싫어하는 어린이날 선물 1위도 스마트폰 등 고가이면서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부터 현금 선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쇼핑 및 구매 활동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생겨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어깨가 무거운 가정의 달

가장 일찍 준비하는 기념일 '어버이날' 건강이 주요 관심사...케어푸드 제품 인기

가정의 달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는 별개로, 해마다 5월이면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부담감은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

으로 나누는데, 성별, 연령대, 혼인 상태 및 자녀 유무를 불문하고, 응답자 다수는 경제적으로 '많이(23.8%)' 내지는 '약간(60.2%)'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하는게 '고민된다(72.5%)'고 털어놓았다.

이 밖에도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NHN ACE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일찍 선물을 준비하는 5월 기념일은 어버이날이었다.

온라인에서 '어버이날' 키워드 유입량은 어버이날 16일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어린이날'은 13일 전부터, '스승의날'은 8일 전부터 키워드 유입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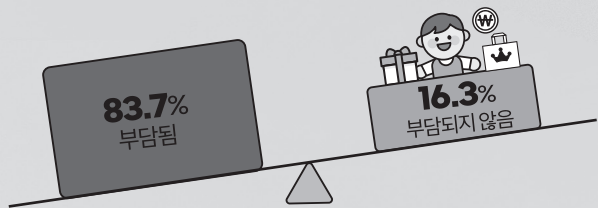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에 대한 관심이 4월말부터 시작돼 지속된 것과 달리, 스승의날은 당일이나 임박한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어버이날'과 조합되어 유입된 키워드는 '용돈'이 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카네이션'은 8%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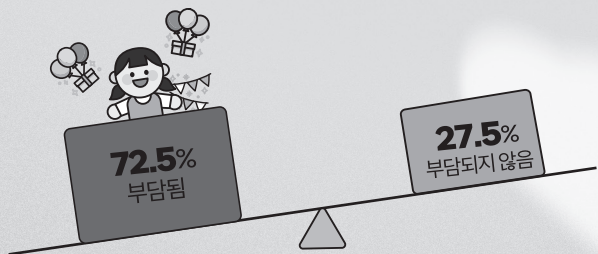
'용돈 박스', '용돈 케이크', '용돈 다발' 등 현금을 선물처럼 포장한 상품도 주요 검색 키워드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족영양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푸드'가 새로운 선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가정의달 이벤트 경제적 부담감



◆가정의달 이벤트 심리적 부담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5년 20.3%, 2045년에는 37.0%로 증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영양관리가 필수적인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케어푸드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가 전 세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며 가정의달 선물로 케어푸드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⑬



대기 건조하고
일교차 큰 5~6월
제철음식으로
건강 살리기
藥食同源

초여름에 들어서며 따뜻한 날씨와 더운 날씨의 사이에 있는 요즘,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로 건강관리가 쉽지 않다. 생활 속 운동과 손 씻기, 마스크 쓰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입맛도 없고 뭘 먹을지 고민이라면 자연의 영양분을 그대로 담아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보자.

출처: 하이닥, 뉴스1

취나물



봄 향기를 가득 품은 취나물은 제철에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취나물에는 칼륨이 많은데, 이는 몸에 쌓인 염분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는 항산화 작용과 피부 노화 방지 효능이 있는 비타민 A 또한 많이 함유돼 있다.

취나물은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기를 꼭 짜서 된장, 참기름, 다진마늘 등으로 양념해 먹거나 밥을 지을 때 넣어서 먹으면 은은하게 풍기는 봄 냄새와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매실



달콤하고 상큼한 매실은 5월부터 수확이 진행되는 열매로 약 3,000년 전부터 약용으로 이용될 만큼 효능이 뛰어난 식재료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며,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다.

매실과 황설탕을 이용해 담근 매실청은 따뜻한 물에 한두 숟갈 타서 먹으면 속이 편안해져 배탈이나 체기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알이 붉은 매실은 손질

후 설탕에 재워 숙성 후 장아찌로 만들면 밥 한 그릇을 똑딱할 수 있는 밥도둑 역할을 톡톡히 한다.

감자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간식거리이자 다양한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는 6~10월이 제철인 감자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이지만 쌀이나 빵보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단에 잘 활용되며, 비타민C가 많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기 제거에도 좋다.

감자 속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으며 감자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껍질째 먹으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감자를 식힌 후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요거트나 견과류와 곁들여 먹으면 영양도 챙기면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참외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일품인 참외는 수분 함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며, 땀을 많

이 배출시킨 후 갈증해소와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하여 이뇨 작용을 돕기 때문에 나트륨과 독성물질을 배출시켜 주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다.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한 곳에서는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신문지와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실에 두면 일주일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

장어



테미너의 상징으로 불리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장어도 5월, 6월에 먹기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약해진 기력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 여기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콜라겐, 비타민 A 등이 풍부하다.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A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 눈 건강에 영향을 준다.

장어는 깨끗하게 손질해 구워서 먹거나 찜, 튀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요리할 수 있다.

장어는 궁합이 맞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게 좋으며, 복숭아를 같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멍게



깊지 않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5월 제철음식 멍게. 칼로리가 낮고 변비완화, 비만예방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 특히 멍게 속에 있는 콘드로이틴 성분이 관절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관절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타우린, 신티올 성분이 들어있어 피로회복과 간기능 개선, 숙취해소, 노화방지 등에도 좋다. 선도가 좋다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멍게의 찬 성질을 초고추장이 보완해줘서 음식궁합이 잘 맞는다.

다슬기



청정 일급수에서만 자란다는 다슬기는 녹색 빛깔을 띠는 식재료이다.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회복과 숙취해소를 돕는다. 또한, 눈의 충혈과 통증을 다스리고 신장을 활발하게 해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다. 차가운 기운을 가진 다슬기는 따뜻한 기운인 삼계탕이나 부추와 만나 엄청난 보양식을 이룬다고 하니, 함께 요리하면 좋다. 다슬기 국, 다슬기수제비, 다슬기 조림, 다슬기 해장국 등의 요리로 드실 수 있다. ㉞

QUIZ 1

사진 속
틀린 곳 찾기



사진 속 틀린 곳을 찾아보세요! 힌트는 3곳!!
틀린 곳을 찾아 응모해주세요!



QUIZ 2

브루코
날말 퀴즈



OO도, OO도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
농약의 올바른 사용은 공존의 첫걸음 (33p 참고)

OO, OO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4월호 정답·당첨자

• 틀린그림찾기:



- 당첨자: 원주연 경북 김천시 덕곡동
신선이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김소연 충남 당진시 정미면

• 날말퀴즈: **오전**

- 당첨자: 안병근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김벼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가지 모두의 정답을 엮거나 e-메일로 6월 27일(금)까지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주)동방아그로, 한국삼공(주)에서 협찬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곳 서울 서초구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 (대양빌딩 5층)

☐ 메일주소 jwpark@koreacpa.org (응모자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2건 이상 접수 시, 먼저 접수된 정답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중복 사용된 정답 사진은 당첨에서 제외됩니다.(당첨자 발표 후에도 적용)